남쪽 섬의 동화 같은 진짜 이야기

매릴린과 시로의 사랑 이야기는 1988년에 개봉한 영화 '매릴린을 만나고 싶어'로 일약 유명해졌습니다.

아카지마 섬의 민박에서 기르는 시로는 자마미지마 섬에 있는 암컷 개 매릴린을 만나기 위해 아카지마 섬의 니시바마 해변에서 바다를 3km 나 헤엄쳐 자마미지마 섬으로 건너갔습니다. 사랑하는 매릴린의 곁으로 가기 위해 헤엄치고 계속 달린 시로의 씩씩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. 영화에서는 실제 시로가 등장했지만, 안타깝게도 매릴린은 촬영 전인 1987 년에 생애를 마감했습니다. 이 매릴린상은 아카지마 섬의 항구에 있는 시로의 상과 마주보고 있습니다.